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CCTV · 방범등, 범죄예방에 효과적”

전북도 자치경찰위 도민 대상 온라인 설문

“유흥·변화가, 생활 주변
안전 가장 위협받는 장소

성범죄, 가장 시급하게
근절돼야 할 범죄

사회적 약자 보호 위해
피해자 보호·지원”



경례하는 신임 육군 부사관

지난 27일 익산시에 위치한 육군부사관학교에서 열린 21~27기 부사관 임관식에서 신임 부사관들이 경례하고 있다.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도민 1,706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6일까지 자치경찰 사무(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와 자치경찰제도 등 4개 분야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먼저 거주 지역의 범죄 안전도에 대해 5점 만점 중 평균 3.65점이 안전하다고 답하며, 대체로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생활 주변에서 안전이 가장 위협받는 장소에 대해서는(중복답변 가능) ▲유흥·변화가(66.4%), ▲주거지역(60.7%), ▲학교, 학원 등 교육지역(21.9%) 순으로 생활안전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예방에 효과가 높은 경찰 활동에는 ▲CCTV, 방범등 등 범죄 예방시설 설치(47.9%), ▲순찰 강화(26.6%), ▲범죄 취약지 개선(19.5%) 등의 답변이 많았다.

치안 활동 중 주민참여가 필요한 부분에는 ▲범죄 취약지 환경개선 참여(32.4%), ▲범죄 취약지 합동 순찰(29.9%), ▲순찰 장소 선정 참여(17.5%) 등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적 약자의 안전도는 3.35점(5점 만점)으로 조사돼 다른 분야에 비해 안전도가 소폭 낮게 조사됐다.

가장 시급하게 근절돼야 할 범죄는 ▲성범죄(34.4%), ▲청소년 범죄(24.7%), ▲아동학대 범죄(19.5%) 등의 답변이 많았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찰 활동에는 ▲피해자 보호·지원

(35.2%), ▲가해자 재범 방지(31.9%), ▲신속한 수사(27.5%)의 답변이 비등해, 경찰뿐 아니라 보호 지원을 담당하는 지자체와 관련 전문기관, 재범 방지를 담당하는 교정기관 등 전 기관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교통안전 분야와 관련한 안전도는 3.48점(5점 만점)으로 조사됐으며,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보호구역(어린이·노인) 내 단속강화(34.3%), ▲보호구역 내 시설물 개선(21.2%), ▲보호구역 지정확대(16.7%) 등의 답변이 많았다.

또, 교통안전 위협 요소에는 ▲음주운전(26.6%), ▲과속·신호위반(24.6%), ▲보복·난폭운전(16.1%) 등 중한 법규위반이 교통안전에 위협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더불어, 자치경찰에 대한 기대 및 인식에 대해 제도 인지도는 2.82점(5점 만점)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지역 치안향상에 대한 기대감은 3.59점(5점 만점)으로 조사됐다.

끝으로 응답자들은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으로 ▲경찰·지역 주민간 협업·참여·소통 증진(34.6%)을 가장 많이 기대하고 있으며,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30.2%),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강화(25.0%)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이영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아 도민들의 인지도가 낮은 만큼, 정례 설문조사 실시, 홈페이지 개설, 전북도 정책플랫폼 소통대로를 활용한 상시 의견수렴뿐 아니라, 유관기관 및 시민사회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접점을 찾아 인지도를 높이겠다”며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전북도청, 전북경찰청 등과 협조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치안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해주세요

탁월한 정책기획력 ‘강점’

조봉업 신임 전북도 행정부지사 오늘 취임 “도 주도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 등에 앞장”

전북도는 30일 조봉업 행정부지사 취임식을 갖고, 조 부지사는 코로나19로 위급한 도내상황을 고려해 도청 각 부서 업무를 돌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했다.



능력, 그리고 중앙의 폭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과감한 정책으로 도정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지금은 민선 7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 간 추진해왔던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앞으로 나아가 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기존의 산업구조에서 탈피하고, 전북도가 주도하는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 신산업 지도의 원성을 통해 생태 명명 시대를 열어가는 데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 부시장 이후 5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 부지사로 일하게 돼 영광이지만, 한편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엄중한 만큼 백신접종의 가속화와 함께, 물 샐 틈 없는 방역으로 소중한 일상의 회복을 앞당기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조 신임부지사는 코로나19로 위급한 도내상황을 고려해 도청 각 부서 업무를 돌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했다.

고창 출신인 조 부지사는 고창고와 경희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제36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지역에서는 전북도 기획관리실장, 전주 부시장을 거쳐 행안부에서 지역발전정책관, 의정관 등을 역임하고, 5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도는 조 부지사가 도정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탁월한 정책기획

코로나19 확산 방지 · 안전 먹거리 사수

도, 추석명절 방역 위생 합동단속... 오늘부터 내달 10일까지 떡 · 한과 · 축산물 등 제수 · 선물용 식품 판매업소 등 120곳

전북도가 추석 명절 대비 추석 다소비 식품 제조 ·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2주간 선제적 방역 및 위생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의 시기적 특수성과 단속의 효율성을 고려해 도 특별사법경찰과 건강증진과, 시 · 군 위생부서, 지방식약청, 생활안전지킴이(민간참여감시원)가 협업해 합동으로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추석 명절 다소비 식품인 떡류, 한과류, 축산물 등 제수용 · 선물용 식품의 제조 · 판매업소와 대

형마트 등 120개소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무신고 제조 · 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 판매,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 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본 방역수칙 및 지역에 따른 단계별 · 시설별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준수 여부 등을 병행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 및 교육을, 중대하고 고의적 · 악의적 불법행위는 관련 법

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추석 명절에 도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이 공급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선제적 위생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이와 함께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방지 및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코로나19 및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신산업)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 전화(280-1399) 및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으로 신고 · 제보해주시길”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모두 함께 만드는 청렴한 세상!

청렴은 전북교육의 자부심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청렴인증제' 실시로
부패없는 청정전북교육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 신고센터

가고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